

광주·전남 이틀새 8명 확진...코로나 지역감염 비상

순천 연향동 은행 직원 4명, 가족 2명...해외 유입 2명 최초 감염자 추적...지역 감염 차단 위해 접촉자 검사 등 방역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8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 2명을 제외한 6명이 순천 연향동의 한 시중은행 직원과 이들의 가족으로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 및 접촉자 확인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확진자 4명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 직원이고 1명은 여수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드러나면서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517번 확진자 발생 이후 8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거주자로 순천 연향동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광주 517번은 건강 검진을 위해 광주 북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강 검진 당시 오한 증세를 설명하자 병원 측이 코로나 19 검사를 권고했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광주 517번 확진 판정 이후 직장 동료 등 밀접 접촉자 진단검사가 시행되면서 광주 517번의 가족과 직장동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517번 가족 중에는 여수에 거주하는 여동생(전남 192번·초교 교사)과 모친(전남 193번)이 감염됐고, 직장동료 3명(광주 518번·전남 194·195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21명은 음성 판정이 내려졌고 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자 해당 은행 지점 사무실을 폐쇄하고 소독작업을 했으며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해당 은행에는 계약직 직원 1명을 포함, 모두 31

명이 함께 근무하는 데다 은행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일상이어서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은행 근무자 31명 가운데 15명이 주중에는 순천에서 근무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

들에게 돌아가는 다른 지역 거주 근무자들이 많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

순천 연향동 은행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광주 517번이 첫 감염 확인 사례이지만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광주 517번, 518번, 전남 194, 195번 등 4명 가운데 최초 감염자가 누구이고 감염 경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방역 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초 감염자 및 감염 경로 조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지역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감염 차단을 위해 접촉자 파악 등 방역을 동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말과 휴일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광주 519명, 전남 195명으로 늘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8일 오후 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순천시 연향동에 지리한 시중은행 한 영업점의 직원과 그 가족 등 다수가 광주·여수·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난문자를 발송해 방역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전남관광재단 21일 무안공항 달밤 비대면 콘서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8일 "무안국제공항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버스킹 '다시 시작되는 여행, 무안공항 달밤 비대면 콘서트'를 오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주말인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무안공항 주차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비대면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여행과 문화에 갈등을 느끼는 내국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공연과 외국인들을 위한 온라인 공연이 동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유행으로 인한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사전접수를 통해 40명을 선별하고, 선별된 관람객은 모두 개인차량에서 공연을 관람케 하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공연은 진행된다.

공연에는 K-pop 스타 정은지(에이핑크)와 에릭남, OST의 감자 만데이키즈가 출연한다.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전남관광을 주제로 참여자들과 소통도 한다.

공연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전남관광재단 페이스북(facebook.com/ijnto.or.kr)에 무안국제공항 또는 전남관광과 관련된 사연을 남기면 된다. 전기자를 타고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공연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전남관광재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방도 제861호선' 노선 변경 구례 지리산도로 지방도 폐지

전남도가 '지방도 제861호선' 노선 변경을 추진, 구례군과 곡성군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선 변경은 국토부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구례군 지리산도로는 지방도 861호선에서 폐지된다. 지난 2007년부터 구례군에서 즐기자게 주장했던 사항으로 13년 만에 해결됐다.

이에 따라 구례 광의면 천은사부터 도계 간 19.8km가 폐지되고, 국도 19호선을 경유해 곡성 고달까지의 25.2km 구간이 지방도 861호선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12일 전라남도 도보에 정식 고시되면 지리산도로의 공식적인 관리청은 구례군이 된다. 도로표지판과 도로시설물 등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정비한 후 구례군으로 이관되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유실 복구공사 역시 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앞으로 지리산 도로를 군도(郡道)로 지정해 관리하게 되며, 관광사업과 연계할 계획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방도 861호선에 포함된 남원구간 16.8km에 대해 자체 노선번호 부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도 861호선으로 새로 지정된 25.2km 중 구례 산동부터 곡성 고달간 14.2km는 지난 2008년 전라남도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시행해 구례군, 곡성군에 이관했던 구간으로 그동안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가 이를 해소기 위해 지방도로 지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수영진흥센터 건립 본격 추진 광주전남연구원 "170억 들여 독립청사 짓겠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370억 투입...2023년 준공 예정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기념유산 사업 중 하나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총사업비 370억원(국비 102, 시비 238, 민 30)을 투입해 연면적 8755㎡, 지상 3층 규모로 센터 내 수영장, 국제스포츠 기념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주민 생활수영, 초·중·고등생 생존수영 교육 및 전국규모 광주수영대회 개최 지원 시설로 건립된다.

지난해 12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다이빙 및 수구 경기가 개최된 남부대학교를 건립 부지로 선정 후 공유재산관리 계획, 학교 내 건축물 건립 승인 및 지상권 설정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인근 중복시설을 고려한 부지 적정성 재검토, 전문체육인 수요 등을 감안해 시설규모 조정' 사유로 두 번이나 탈락했다.

광주시는 중앙부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심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제3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도전해 무사히 통과했다.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달 내 남부대학교와의 건립협약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보완 용역 후 2021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는 물론 많은 전국규모 수영대회를 유치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의회 보고에 일부 의원 부정적

광주전남연구원이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독립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밝혔다. 연구원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재영 연구원장이 업무보고에서 179억원 규모의 독립청사 신축 계획을 언급했다. 연구원 이사회 의결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의회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연구원 발전기금(240억원 규모)을 활용해 빛가람혁신도시에 독립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임대 사무실 보증금 46억원, 월 관리비 1200만원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신청사 입주 시 사무실 임대 등을 통한 부대 수입도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그러나 정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 5) 의원은 "연구원이 무려 170억원의 혈세를 들여 시급하지 않은 청사 신축에 나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위원들도 "170억원짜리 청사는 너무 호화롭다" "연구원 발전기금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금이 청사 건축에 사용하라고 조성된 기금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연구개발용 부지가 있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청사 신축은 연구와 재정 자립 등을 고려한 자체 계획이며 건립 시기와 청사 규모 등 구체적인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월 박재영 원장에 대한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연구원 독립청사 건립 모색을 위한 TF 운영'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 1991년 12월 설립된 연구원은 설립 30년 동안 독립 청사가 없었다.

함평産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